

스탈린 시대에 대한 새로운 해석

— 바르가 연구소를 통해서 본 소비에트 정치 문화

[서평] Kyung Deok Roh (2018), *Stalin's Economic Advisors: The Varga Institute and the Making of Soviet Foreign Policy*,
London: I.B. Tauris.

김 동 혁*

I.

지난 2018년 국내 러시아사학계의 저명한 연구자인 노경덕 박사가 국내 인문사회 연구자로서는 드물게 역사, 국제관계학 등의 출판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I. B. Tauris 출판사에서 스탈린 시대에 대한 중요한 연구서인 *Stalin's Economic Advisors: The Varga Institute and the Making of Soviet Foreign Policy*를 출간했다. 이 저서는 유진 바르가(Eugene/Evgenyi/Jenő Varga)가 소장이 된 이후, 스탈린 집권 시기 내내 탁월한 싱크탱크, 즉 소비에트 버전의 채텀하우스 내지 브루킹스 연구소 역할을 한 ‘바르가 연구소’(세계경제-세계정치연구소, Institut mirovogo khoziaistva i mirovoi politiki: IMKh)에 대한 수정주의 시각의 연구이다. 저자는 스탈린의 지지

*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를 받아 바르가가 소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 연구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1930년대 초부터 당 내 공격을 받고 해체되는 1947년까지 바르가 및 바르가가 이끄는 연구자들의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당 핵심 지도부의 세계정세 판단과 외교 정책 수립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과정의 역동성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저자는 소련 경제사상과 경제학의 현실적용 과정, 스탈린 시기 상위 정치의 복잡한 작동방식, 그리고 스탈린 시기 소련의 최상위 정책 결정자들의 세계정세 인식과 이를 통한 외교 정책의 입안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소비에트 역사와 냉전사 연구자들 모두에게 ‘바르가 논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르가와 IMKh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소련의 국내외 정치에서 스탈린주의적 경향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연구들은 바르가와 그의 연구 집단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 이미지를 창출해 냈는데, 하나는 바르가와 스탈린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으로서 바르가의 경제적 사고가 스탈린의 대책점에 있거나 최소한 대안에 가까운 개혁주의적 경제학이었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바르가와 스탈린의 지적, 인간적 친밀성을 강조하면서 바르가와 그의 집단이 레닌주의의 도그마적 적용인 정통 스탈린주의의 선전자이자 전달자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두 입장 모두 바르가 연구소와 스탈린의 관계에 대한 일부분의 진실만을 말할 뿐 그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소비에트 역사와 초기 냉전에 대한 불완전하며 왜곡된 상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 사료에 대한 분석 방법의 한계와 소련 붕괴 이전까지 소련 내부 문서고 자료의 접근성 문제 때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문화사의 담론 분석 방법, 즉 서술의 대상에 대한 것 보다 서술 방법에 더 집중하는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문서고 혁명 이후 접근이 쉬워진 러시아 국립 문서고의 방대한 자료들을 새로이 분석했다.

II.

*Stalin's Economic Advisors*는 이처럼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자료들을 발굴함으로써 소련의 당과 학계의 관계, 소련의 중요 외교 전략의 입안과 적용 과정 등을 밝혀 낸 작품이며, 이를 통해 스탈린 집권기부터 냉전 초기까지 소련의 상위 정치 작동방식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스탈린의 외교 정책은 역사가들과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주제이지만 소련의 외교 정책이 수립됨에 있어서 싱크탱크와 같은 서방 국가들에서 볼 수나 있는 기관이나 외부 개인들의 역할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관심 부족 이유 중 하나는 스탈린이 모든 결정을 했다는 학자들의 가정에 있다. 그러나 이 책에 따르면 스탈린이 최종 정책 결정자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의 사고도 다른 이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들이 구축한 담론장 내에서 형성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자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바르가 집단의 텍스트에 대해서 최근 20여 년 동안 급성장한 문화적 외교사 연구에서 많이 적용된 담론 분석을 진행했다. 우선 저자는 당시 현실에 적용된 이데올로기적 표현들을 조사하면서, 원래의 마르크스주의적 교의들이 당대의 경제학적 경향을 기민하게 수용했던 바르가 집단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고 변형되며 재변형되었는가를 분석했다. 둘째, 저자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스탈린주의적인 세계경제 담론의 형성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IMKh의 연구 의제들과 그 결과가 대공황, 전쟁 준비, 2차 세계대전 및 냉전기의 정세 속에서 체계적인 일련의 사고로 진화해가는 과정을 추적했다. 셋째, 스탈린과 바르가 집단이 공유한 개념적 기반을 밝히기 위해 이 책에서는 서술된 대상에 대한 것보다 서술 방법에 더 집중하는 텍스트 분석 방식이 도입되었고, 세부적인 주장과 결론 내용보다는 텍스트의 형태와 스타일에 집중함으로써, 바르가 집단의 담론에 의해 창출된 인식론적 범위 내에서

스탈린이 자신의 외교 정책을 구상 및 실행했고, 그 범위의 경계가 그의 선택의 한계를 규정하고 구조지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저자의 문화적 접근법은 다양한 이름의 문헌들을 무작위적으로 탐구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문화사적 방법론을 따르지 않고, 중요한 정책 조언자들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훨씬 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스탈린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중요 문건들의 담론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지음으로써 더욱 밀도 있는 외교사 연구가 되도록 했다. 또한 대중의 태도, 이미지, 기억 및 편견과 같은 더 넓은 범위의 요인들 보다는 근대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 체계, 특히 경제학에 집중함으로써 상위 정치 지도자들의 대내외 정치적 인식의 구축 과정을 심도 있게 드러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사교가 어떻게 20세기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책이 이러한 담론 분석 방법에만 머물렀다면 기존의 학설사적인 바르가 연구¹⁾와의 결정적인 차별점을 드러내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바르가 집단의 경제학적 분석과 보고서에 대한 순수한 담론적 분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 공산당과 학술원 문서고에 감춰져 있던 수많은 공식, 비공식 문서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바르가 연구소와 그를 둘러싼 상위 정치 지도자 및 기관들 사이의 인적, 제도적 연결망에 대한 정통 제도사와 정치사적 접근 방법도 중요한 방법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1장과 2장에서 주로 서술된 바르가 연구소의 제도적 발전 과정과 5장에서 서술된 바르가 연구소의 해체 과정 및 그것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새로이 발굴된 문서고 문서들을 이용한 전통적인 제도사 및 정치사적 접근법이 아니고서는 심도 있는 서술을 할 수가 없다. *Stalin's Economic Advisors*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담론과 제도적 차원 모두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저자는

1) André Mommen (2011), *Stalin's Economicist: The Economic Contributions of Jenő Varga*, Routledge: London & New York.

1920년대 말부터 스탈린이 사망하는 1953년까지 스탈린과 다른 정책 결정자들의 지원을 받은 바르가 집단이 점차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분석과는 다른 자본주의 경제와 그 위기에 대한 담론들을 형성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 하에서 스탈린 및 소련 공산당의 주요 지도부가 2차 세계대전 시기와 냉전 초기 국제정치를 구상함에 있어서 점점 더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멀어져 갔다.

III.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장과 2장에서는 바르가 연구소의 제도적 발전 과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구조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1927년 유진(예브게니) 바르가가 세계경제세계정치 연구소의 소장이 될 때만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던 이 연구소가 1931년 말 즈음에는 바르가의 주도 하에 소비에트 유일의, 그리고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서방 경제에 대한 연구 제국이 되었다. 바르가의 개인적 역할과 함께 문화혁명으로 인한 소비에트 학계의 제도적 개편은 연구소가 단기간에 거대한 틀을 갖추고 큰 중요성을 갖도록 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대공황이 자본주의 세계에 충격을 준 이후 시작된 스탈린의 적극적인 후원이었다. 이는 대숙청의 파고를 넘어서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저자는 바르가 연구소의 지배력과 스탈린의 후견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이것이 ‘개인적’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 국내 정치, 지적 경향 및 국제 관계의 좀 더 넓은 정황에 의한 구조적인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3장과 4장은 세계경제와 그 위기에 대한 바르가 연구소의 이론과 담론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연구소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핵심

집단 양성을 주도했던 바르가의 이론적 작업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속한 경제학적 전통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이 주류였던 소비에트 학계에 결합시키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서의 정책 보고서와 발간물 같은 세계경제와 그 위기에 대한 연구소의 특수한 연구들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서 저자는 바르가 및 그의 연구 집단과 스탈린 및 스탈린주의적 지도자들 모두가 공유하는 특수한 담론적 윤곽을 보여주면서 1930~1940년대 이후 스탈린이 취한 외교 정책의 선택지를 경계 지은 인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혔다.

본서에 따르면 바르가 집단의 경제학은 비교 경제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 경제학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는 달리 분석의 기본단위를 국민 경제 단위로 설정한다. 그들은 힐퍼딩과 록셈부르크에 의해 각각 대표되는 두 가지 뚜렷한 경향의 마르크스주의와 W. E. 미첼의 경제통계학을 결합시켰다. 세 학파의 경제사상을 결합시킴으로써 그들은 자본주의의 장기 경향을 포착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기순환을 분석하고 단기 변화들을 추적했다. 바르가 연구소의 주요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적 배경 속에서 서방 국가들의 개별적인 경제 발전 양상을 치밀하게 설명하고, 그러한 발전들이 개별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경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극적으로 확대된 국가의 역할을 지적했고 개별 국가의 정책들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 법칙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연구소의 학자들은 매우 구체적인 통계 영역을 매우 중시했으며 기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해왔던 방식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거대이론 구축 대신 개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생산, 물가, 유통과 같은 경제요인들의 변동에 대한 단기분석들을 제공했고 당대 서방경제의 변화를 포착해서 국제정치 전략 작성을 위한 의미를 읽어내고자 시도했다. 즉, 이들은 논리적 인과법칙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에 근거해서 당대 세계의 역사적 특수성 및 예외성이 자본주의의 임박한 법칙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르가와 그의 동료들이 스탈린 시기의 국내 정치 분위기와 국제적 변

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과학적 작업은 1930년대 초 이래로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당의 이데올로기적 지침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들에게 가해진 주된 압력은 스탈린과 다른 지도자들의 좀 더 실질적인 지식과 분석에 대한 요구였다. 바르가 집단은 과학적 작업을 진행할 때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라는 항상적 압력에 놓여있었다.

한편, 바르가 집단 또한 당을 ‘우리’에 맞서는 ‘그들’로 바라보지 않았다. 당을 외부의 통제자로 여기기보다는 당은 그들의 사회적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당은 자신들의 지적 세계를 침해하려 하는 외부적 독립체가 아니었다. 구 제정 러시아 학술원 전통을 물려받은 학자들과 달리, 바르가 집단은 그러한 침해에 대항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혁명적 분위기에서 훈련받은 그들은 당과 학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당의 사고를 광범위하게 공유했기 때문이다. 당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문제는 당을 위해 기여하고 그로부터 보상을 얻는 다른 기관들과의 제도적 경쟁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지적, 제도적 기반 속에서 바르가와 그의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수립하고 세계경제와 그 위기에 대한 일련의 담론들을 생산했음을 방대한 사료 작업과 담론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다. 분석적 측면에서 본서의 가장 탁월한 점을 꼽자면 바로 이 지점이다.

5장은 정치사와 제도사 영역으로 돌아와서 바르가 연구소의 해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 소비에트 아카데미아와 상위 정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들 중 하나인 “바르가 사건”(Varga Affair)이 다뤄졌다. 저자는 이와 관계된 여러 정황들을 살피면서, 스탈린과 연구소의 연결 관계, 연구소에 대한 당의 통제 및 바르가 집단 내에서의 복잡한 관계들과 같은 이 저서의 주요 주제들을 재검토했다. 바르가 논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중 일부는 논쟁을 당이 내외적으로 냉전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후 소련의

지성계에 존재하던 수정주의적, 개혁주의적 그리고 친서방적 사고들을 말살하고 문화계와 과학계에 정통 스탈린주의를 재확립하려 했던 시대적 배경과 결부시켰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은 바르가의 수정주의적 경제이론을 둘러싼 논쟁과 사실상의 숙청의 의미를 더욱 확대시켜서 여기에서 스탈린의 외교노선과 냉전의 기원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 연구들이 기 간행된 자료들에만 의존한 나머지 1947~1948년간의 이론적 논쟁에만 주목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이 발굴한 문서고 자료를 통해서 바르가 사건의 배경이 기존 주장들처럼 이론적, 정책적 논쟁이 아니라 안드레이 즈다노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국수주의자들에 의한 반서방적, 인종적 공격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본서는 스탈린이 이러한 인종적 공격으로부터 바르가를 구했고, 1947~1948년의 공개적인 모욕에도 불구하고 바르가 집단의 연구들은 그 이후로도 스탈린에 의해서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며 연구소 해체 이후에도 이들과 스탈린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규명했다. 줄리 해슬러와 같은 연구자는 본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큼은 더 직접적인 문서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스탈린과 즈다노프 파벌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을 비판했다.²⁾ 하지만 필자는 본서 5장의 여러 증거들로 저자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서 즈다노프의 바르가 연구소에 대한 공격이 냉전적 대립이 시작되기 한참 전인 1941년부터 진행되었다는 점으로부터 1947년 이후에도 지속된 스탈린의 바르가 집단에 대한 신뢰의 증거들을 제시했다.³⁾ 역사학 연구에서 그 이상의 직접적 증거가 문서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극히 드물다.

2) J. Hessler (2020), “Book Review: Kyung Deok Roh. *Stalin’s Economic Advisors – The Varga Institute and the Making of Soviet Foreign Polic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25 (1), p. 337.

3) Kyung Deok Roh, *Stalin’s Economic Advisors*, pp. 159-163.

IV.

본서는 바르가와 바르가 연구소의 역사를 통해서 당과 학계의 관계, 소련 상위 정치의 작동 방식 그리고 소련의 최상위 정책결정자들의 정세 인식의 구조 및 정책의 입안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했다.

바르가 집단이 구축한 담론 세계에서 경제적 요인은 항상 정치적이고 국가 정책 수준의 행위들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개별국가들의 특수한 경제 상황과 그 국가들이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해 취한 수단들은 전체 자본주의 경제의 공통적 문제들보다 우선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경제법칙과 계급원칙에 덜 규제받으면서 외교 영역에서 다양한 정치적 조작과 유연성을 상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제한 받지 않은 기관으로 인식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담론은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경직된 사고 체계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동시에 그것은 특정 조건들에 특수한 매우 상황적 사고와 실천을 생산할 가능성을 낳았다. 이것은 스탈린과 다른 정책 결정자들이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그들의 외교정책을 구상하는 담론 세계였다.

혹자는 바르가 논쟁과 그 이후 연구소의 해체가 스탈린이 전후에 바르가 연구소 작업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더 이상 서방 경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사고를 견디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소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저자의 연구는 그러한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서고 증거는 바르가 논쟁과 연구서 해체가 완전히 다른 맥락, 즉 당의 최상위 간부들 중 일부 초-민족주의(국수주의) 자들에 기인했고, 그들은 연구소의 경제적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스탈린은 1947년 9월 연구소 폐쇄 이후에도 바르가와 그의 경제학자들에 의지하는 것을 지속했다. 저자는 이처럼 한 연구소의 일대기를 통해서 소비에트 정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과 소비에트 시대사의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